

지역 소식통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 현열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안과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8일부터 14일까지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창 푸른숲 자연장' 등 주요 사업장 16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각과·관·소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15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신속한 대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한편, 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봉희 의원의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발표했다.

(주)대미실업은 고창군 성내면과 정읍시 고부면 경계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을 전북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 허가 절차 단계를 추진 중에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어르신 들니 무료 지원

정읍시 보건소가 어르신 치아 건강 회복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무료로 지원하는 '무료 노인 의치 지원사업'을 이달 동안 추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이다.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단, 한 악만 시술 받은 경우 반대편 악 신청 가능)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구강 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4월 말 기준 10명의 신청자가 사업을 완료했고, 10명이 진행 중이다.

/정읍=김대환기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속도

정읍시,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 등 맞춤형 정책 눈길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민 생활안정 도모

정읍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운수종사자를 돕기 위해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빠른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코로나19에 따른 수익감소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유진섭 시장은 7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사항과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총 9억3,900만원(도비 2억6,800만원, 시비 6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 택시 및 화물 종사자에게 1인당 7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택시 운수종사자 597명과 화물운수종사자 744명(택배 운수종사자 제외) 등 총 1,341명(2020. 2. 23. 기준:코로나19 심각 격상일)이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교통과, 택시조합, 법인택시사, 화물연가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5월 안에 신청서를 받아 6월 초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현재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

수 위축 등 시민들이 경제적 심리적 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극복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정읍시 긴급재난소속과 함께 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극복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정읍시 긴급재난소속과 함께 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치매 환자 돌봄서비스 공백 최소화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쉼터' 운영

정읍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의 돌봄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치매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치매 환자 쉼터'를 운영한다.

'쉼터'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주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3시간)까지 운영된다. 치매 환자가 가장 머물지 않고 쉼터를 방문해 인지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치매 악화 방지와 사회적 접촉 및 교류를 증진 시킬 수 있다.

또, 낮시간 동안 치매 환자를 보호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커리큘럼

을 통한 인지 강화훈련,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적 접촉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명상, 미술치료, 요리치료, 원예치료, 신체 건강을 위한 운동 치료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또 기억력 감퇴 수준과 우울 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간이 정신 상태 검사와 노인 우울척도, 주관적 기억감퇴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남아있는 잔존 능력 유지 향상과 치매증상 악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치매안심센터(063-539-696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공산저수지 둘레길 완공

고창군은 삼원면 공산리 공산저수지 일원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수(水)생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비(국비) 9억원의 예산 확보 한 뒤 2019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최근 사업을 마무리 했다.

공산저수지 전체구간 4.6km 중 공산마을 앞 450m에 수변 데크길이 만들어지고, 주변이 말끔하게 정비됐다.

공산 저수지 둘레길은 전폭 1000리길(고창 탐사르습지길, 고창음성길 등)과 함께 고창군민과 힐링을 위해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의 대표산책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난달 27일부터 5일간 운곡람사르습지 6개 마을 주민들이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120m 논둑복원을 실시했다.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복원 6개 마을 주민 발벗고 나서

전통 방식으로 120m 논둑복원

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 6개 마을 주민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습지 복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5일간 운곡람사르습지 6개 마을 주민들이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120m 논둑복원을 실시했다.

운곡람사르습지 논둑복원은 2016년부터 5년간 이어진 주민 참여 내륙습지 복원활동으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으로 방문할 만큼 지역주민을 활용한 습지 복원 모범사례로 뽑히고 있다.

운곡습지는 폐농경지가 된 후 30여 년 동안 사람들이 발길이 끊기자, 자연스럽게 생태 회복 과정을 거치며 원시 습지로 복원된 곳으로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용계, 독곡, 부귀, 매산, 송암, 호암) 주민들은 이곳의 보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습지로 복원된 곳으로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용계, 독곡, 부귀, 매산, 송암, 호암) 주민들은 이곳의 보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16년 논둑복원을 시작한 후 논둑복원지의 유출수가 감소하고 반딧불이, 다슬기 등의 생물 개체수가 증가했으며 현재 탐방객들에게 습지보전 인식증진을 위한 생태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고창군청 이명수 생태환경과장은 "논둑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습지 보전 관리의 효과를 느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운곡습지의 보전을 위해 논둑복원과 같은 자율적인 생태복원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김광수 부안군의원, 새만금 비산먼지 해결 촉구

김광수 부안군의원(변산·계화·하서·위도 선거구)은 최근 열린 제30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비산먼지 해결을 위해 모든 관계기관과 군민이 함께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은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곳곳에서 추가적인 개발과 매립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먼지날림과 소음진동으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새만금지방 환경청 등 감독기관에서는 비산먼지 관리규정 위반업체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광수 의원은 "새만금 비산먼지 해결을 위해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로 나서야 한다"며 "사업일정을 주민과 협의해 준설토로 인한 뽕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관리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서도 강력한 지도단속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김광수 의원은 "새만금 비산먼지는 이제 우리 군민들의 삶까지 야금 야금 침범하고 있다"며 "이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 등 모두의 뜻을 모으고 행동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a climate change campaign. It features a polar bear in a desert landscape. Text includes: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